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CONTENTS

2011. 09. Vol 212

Cover Story



충청북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의회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 석교 · 진천 삼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정견발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는 등 의정체험을 하고 있다.

- 02 개원 1주년을 맞으며
- 04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 충청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 닛 올렸다
 - 남부권 균형발전 결의문
- 06 북부권 균형발전 토론회
- 07 중부권 균형발전 토론회
- 08 지방의회 혁신과 제도개선 방향 정책토론회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 11 각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 18 주요처리의안
- 20 5분 자유발언
- 23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25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세무, 건강 상식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개원 1주년을 맞으며

제9대 의회는 지난 7월 개원 후 1년 동안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개원 초 가슴에 담았던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개를 꺾지 않으며 혁신과 변화, 역동하는 의회를 모토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무상급식협상지원단을 구성해 도와 교육청의 입장 차이를 중재하며 전국 유일의 무상급식을 이뤄내는데 앞장서 기여한 것이 가장 보람된 기억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해 민·관·정 연석회의를 제안·개최하고, 국회 앞 쫓기대회를 여는 등 선봉에 섬으로써 기능지구를 청원에 유치함은 주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의정사상 최초로 회의장을 벗어나 옥천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천과 괴산에서 현장 상임위원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균형발전이란 의제를 전면화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며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함은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도의회 위상과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도입하여 전 대보다 수 배 많은 20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 대보다 1.5배 많은 367건의 시정 요구와 건의사항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회기마다 어김없이 전체의원 연찬회를 강행한 성과는 전 대보다 약 2배 많은 47건의 의원발의 조례제정으로 이어졌고, 교육위원회의 작은학교 살리기를 테마로 한 해외연수 등 해외연수의 혁신이 이뤄졌습니다.

이렇듯 분주했고, 도의회가 살아 꿈틀대는 모습을 도민께 보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차분한 평가와 성찰로 또 다른 출발을 해야 합니다.

도의회는 사회복지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깃발을 들고 도민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의회 존립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되, 개혁적인 의제와 대안의 제시로 도정의 방향을 설정해 가는데 한 몫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9대 의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 8월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 경 근





▲ 7월 22일 의정사상 최초로 본회의장을 떠나 옥천체육센터에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 닷 올렸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의정사상 처음으로 옥천서 본회의
북부·중부권서 상임위, 토론회 열어 균형발전방안 모색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도청이 아닌 북부권과 중부권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부권에서 본회의를 열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넓혔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지난 7월 12일

제천 청전동 주민센터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이어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열린 「북부권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는 제천·단양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회)도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상임위원회와 중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2일에는 옥천 체육센터에서 도의회 제302회 정례회 본

회의와 남부권 균형발전 다짐대회를 열어 의회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처럼 본회의를 지역에서 개최한 것은 의정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시도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투자재원 확보와 남부출장소 설치를 비롯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근 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발전정책

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도민들의 의지가 모아지면 균형발전의 꿈도 확실히 이룰 수 있다”며 “도의회가 충북 백년대계를 위한 균형발전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식과 정책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 후 도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충북 남부권 균형발전 결의문

충청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청원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유치와 23조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충청북도의 큰 성취에도 불구하고 충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낙후와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남부권에 대한 특화된 발전전략과 정책의 수립, 예산을 포함한 각종 지원시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남부권의 발전은 결국 타 지역과의 상생이요, 충북의 포괄적 발전전략과 동반성장 개념에 부합하고 기여하는 올바른 길이라 믿는다.

이에 우리 다짐대회 참석자 일동은 158만 충청도

민의 염원을 담아 도민 모두가 잘사는 충북 건설을 천명하며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통해 충청북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모두는 충청북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성장촉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모두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 3군에 대한 투자와 역량을 강화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모두는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을 구현해가는 데 있어서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1. 7. 22.

북부권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제천·단양 다양한 특화산업 발전 시책 제안

원광희박사, 내륙첨단산업벨트·백두대간벨트 발전전략 제시

사회



조남근 교수
세명대학교

주제발표



원광희 센터장
충북발전연구원

북부권 균형발전 토론회는 세명대학교 조남근 교수의 사회로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기수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이장근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김지학 충북학사 원장, 장필영 단양군의회의원, 민장기 (주)제천운수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로 나선 원광희박사는 제천, 단양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산업분야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및 백두대간벨트 추진, 솔라밸리의 북부권 확대 조성, 한방바이오산업 특화육성, 석회석 신

소재산업 및 자원순환형 산업 선점 등을 제시했으며 농업분야는 지역특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 북부권 산촌형 문화·생태 빌리지 조성, 산업분야로 산성 드라마 촬영지 등 관광명소화, 충주~청풍호(남한강) 일주 둘레길 조성, 수변 친화형 사계절 관광거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지원시스템 구축으로는 시군별 재정력을 고려한 예산분담 비율 조정, 북부권 출장소 기능강화, 권역별 사업단 기능 확대,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포럼 구성, 권역별 시·군간 균형발전 협약 추진, 조건 불리지역 전담연구체계 구축, 공동협력지구 발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도입, 사전협의 의무화 제도 도입, 공동협력지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북부출장소에 특화산업 지원기능 확대, 청풍호·충주호 7백리길 조성, 중원문화권 투자 확대, 한방 바이오엑스포 후속대책 추진 방안 등을 제기했다.

토론



권기수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이장근 국장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김지학 원장
충북학사



장필영 의원
단양군의회



민장기 대표
(주)제천운수

중부권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농업 신성장동력 · 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괴산지역 도의회 최초의 행사로 주민 큰 관심

사회

정 현 의원
충청북도의회

주제발표

이태근 대표
(사)흠살림유승우 소장
(사)농어촌개발연구소

7월 14일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개최된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와 정책토론회는 도의회 최초의 괴산지역 행사로 큰 관심을 모았다.

먼저 진행된 산업경제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력 있는 농촌건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녹색 생태·휴양·관광자원 육성 등 농정국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가 있었다. 업무추진 상황 청취 후 의원들은 FTA 확대에 따른 농업·농촌의 구조개선, 미래농업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체 선진화 등을 주문했다.

정현 산업경제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

에서는 이태근 흠살림 대표가 「친환경 유기농업의 국내외 동향과 괴산군 농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제1 주제발표를 통해 괴산군 유기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와 사업단 구성, 괴산군 인증 및 품질관리센터 구축, 생태 유기농업연구소 설립, 친환경 유통의 중부지역 거점화 등을 제시했다.

유승우 농어촌개발연구소장은 제2주제 「농촌관광의 비전과 활성화 전략」 발표에서 농촌은 FTA 체결, 인구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입지별·자원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관광, 도농교류, 친환경 농업 등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의원, 류일환 충북도 원예유통과장, 윤명진 괴산군농업인연합회장, 김흥기 괴산군한우협회지부장, 김정우 괴산군양돈협회지부장, 이광희 괴산군의회산업개발위원장, 우종진 괴산군친환경농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중부권 균형발전방안과 농업 및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

김희수 의원
충청북도의회류일환 과장
충청북도 원예유통과윤명진 회장
괴산군농업인연합회김흥기 지부장
괴산군한우협회김정우 지부장
괴산군양돈협회이광희 위원장
괴산군의회우종진 과장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지방의회 혁신과 제도개선 방향 정책토론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 제약하는 제도개혁 시급

의회운영 개선 등 내부역량 강화 방안도 필요

사회



최영출 교수
충북대학교

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혁신과 제도개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영출 충북대교수의 사회로 하승수 변호사와 장선배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하 변호사는 제1주제 「지방의회 20년의 평가와 혁신역량 강화방안」 발표에서 지방의회는 그동안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방행정 서비스 향상과 자치입법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과 함께 지방의회의 운영개선 등 자체적인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제2주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표에서 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자치입법권의 확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효율성 제고, 의회 및 의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요지

「지방의회 20년의 평가와 혁신역량 강화방안」



하승수 위원장
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행정 서비스가 향상되고 행정정보공개조례(1991. 청주시의회) 등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는 모범적인 조례들이 생산됐다. 또 교육과 복지, 농촌지역 활성화 등 각 분야의 생활밀착

형, 지역밀착형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등 주민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 부활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많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제도 개혁과 지방의회 자체의 혁신노력이 요구된다. 법제도 개혁은 사무국 인사권 독립,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장선배 의원
충청북도의회

지방의회에는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법·제도적인 제약요인이 많아 의회기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시급하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사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와 감사 및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 변상이나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도 필요하다.

의회직 신설을 통한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들의 전문성 및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보좌관제 도입, 자율조직권 확대,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제 도입, 의장 선출방식 변경 등 의회 운영개선도 과제다.



▲ 7월 8일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20년의 평가와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나선 이두영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집행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각종 사회적 갈등 해결, 분권형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전국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동 전 충청북도의회의장은 의정활동 강화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의원의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형평성 제고, 지방의정 연수원 설치를 제시하고 국회의 예산정책처와 입법정책처 같은 지원기관을 둘 수 있도록 조속히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선 동양일보 상임이사는 지방의회가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여성문제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부족했다고 평가한 후 지방의회와 지역 여성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성의원들 간의 여성정책협의체 구성, 지방의회 내에 여성정책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기현 충청대학교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의 독립성 강화, 집행기관과의 대등한 관계 정립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도덕성 함양, 지방의원과 주민(시민단체)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



이두영 공동대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기동 전 의장
충청북도의회



유영선 상임이사
동양일보



남기현 교수
충청대학교



오진섭 정책기획관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제9대 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충청북도의회는 7월 11일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및 각 상임위원회 안배 등을 감안하여 선임했으며, 2011년 7월 1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번 선임된 의원은 위원장에 이광희 의원, 부위원장에 유완백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에는 강현삼, 노광기, 김도경, 장선배, 김영주, 윤성옥, 정현, 김동환, 이수완, 임현, 전용천 의원이 선임됐다.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정 각오

“상임위원회 의사결정 최대한 반영 노력”



제9대 2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난해 1년 동안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을 통해 이쉬웠던 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결산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권능을 좀 더 높이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심한 바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대한 존중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원들에게 예·결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혹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조금 미진했던 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납득이 가능하도록 설명하게 해야 할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나 문제점을 서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도민이 내는 세금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 오면서 집행부와와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에 두려움이 되는 의원, 혹은 집행부의 총애를 받는 의원이기보다는 집행부의 존경을 받는 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충북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도록 예결위가 가교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예결위원 선임 · 결산안 승인



▲ 7월 11일 의원 연구활동 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희)는 제302회 정례회 회기 중 두 차례 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7월 11일 개최한 제1차 운영위원회는 신동인 사무처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으며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의회 위상 제고와 상시의회 구현, 연구·연찬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보좌 활동에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사에서는 세입예산액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7만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인 75억 7,064만원 중 72억

4,748만원이 집행되고 3억 2,316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되지 않은 3억 2,316만원은 집행 잔액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제9대 의회 예결위원 활동기간이 2011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예산결산 업무에 대한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예산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제안 이유와 활동목적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요골자로 구성인원은 13명이며 임기는 2011년 7월 1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한다.

7월 22일 개최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정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 미래관 건립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1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충북도립대학의 위상 강화와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추진 중에 있는 미래관 건립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영호 前청주의료원장에게 감사를 통해 사퇴압력을 가했는지 여부와 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였으며 결원중인 청주의료원장은 의료원의 체계적인 부실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리고 1997년 청주의료원 경영부실로 도 공무원을 파견해 정상화시킨 사례를 들면서 의료원의 직업분야적자 증가, 장례식장 관련 경찰 수사, 내부갈등으로 인한 내과 의사들의 집단 퇴직, 직원들의 기강 해이 등 현재의 모습이 그 당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청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도 공무원 파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심사에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지방 채무에 대한 상환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부적절한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 등을 지적했다.

한편 김도경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그 동안 장애인 본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던 복지정책을 가족 구성원까지 확대해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7월 15일 충북도립대학 미래관과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고질적 체납 징수대책 촉구



▲ 7월 15일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충북문화재단 관련 규정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양서류 생태관 건립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생태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완료하여 여객과 화물의 거점공항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화시대에 우리말 사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자라나는 학생에게 고루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함께하는 충북뉴스' 명예기자과 도민홍보대사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고질적 체납을 지적하며 별도 대장관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잔액발생을 지적하며 세심한 업무추진을 당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그리고 충청북도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는 예산절약 수범 사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도청담장 철거 효과가 미약하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또 이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의원입법 발의안으로 도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설치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과 청남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낙후지역 투자 촉진 방안 요구



▲ 7월 14일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미래농업의 변화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7월 14일 괴산에서 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중부권균형발전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열린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정국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FTA 등의 확대에 따른 농업·농촌 구조개선과 미래 농업의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선진화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실시된 중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태근 흙살림 대표와 유승우 (사)농어촌개발연구소장으로부터 「친환경 유기농의 국내외 동향과 괴산군 농업의 발전 방향」과 「농촌관광의 비전과 활성화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각각 듣고 괴산군 농민단체 대표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벼대신 타 작물을 재배할 때의 지원 대책과 친환경 축사 건

립에 대한 대책 마련,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도 농정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과 산업단지 보상 시 지역별 형평성 고려할 것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증대, 낙후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홍보와 농업기술원의 연구성과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7월 18일에 열린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과다불용 사업과 낭비성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균형발전 전략사업 현장 확인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균형건설국과 바이오밸리추진단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현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또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과 제9대 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천시 청전동 주민센터에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천명하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낙후지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능동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청주시·청원군 오송첨복단지 공조,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후속조치 등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18일과 21일 장류식품산업 육성사업장,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장, 다누리센터 건립현장, 옥천소방서 신축현장, 옥천 클러스터센터 등의 전략사업장을 방문해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또 의원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군에서는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업장에서는 신뢰를 확보하여 낙후지역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임현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 7월 18일 옥천소방서 신축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듣고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개정

교육위원회는(위원장 최미애)는 제302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안전심사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7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 위원들은 심사에 앞서 장연초등학교 광진폐교를 방문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현황을 청취한 후 광진폐교의 토지 10,691㎡와 건물 1,050㎡를 매각하여 「방곡권역 활성화 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99.1%인 1조 9,427억 7,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액 대비 84.8%인 1조 6,427억 2,900만원, 세계잉여금 2,955억 4,6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충북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학습관 기능과 지정, 지정절차,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7월 18일과 21일에 열린 2·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연초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각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게 질문했다. 또 도출된 지적사항과 결과를 투명하고 정확히 분석하여 하반기에 추진될 교육활동과 주요사업들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목표하는 바를 최대한 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효과적인 실행을 요구했다.



▲ 7월13일 장연초등학교 광진폐교를 방문하여 주변환경과 시설을 확인하고 매각사유를 확인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건 승인



▲ 7월 19일 충청북도과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제302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년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7월 19일 예결특위에 상정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9,42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9.9%, 세출 결산액은 1조 6,47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4.8%이며 세입 잉여금은 2,955억원이다.

예비비는 19억 9,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6,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또한 7월 20일 상정된 2010회계년도 충청북도 세입결산액은 3조 5,521억원이고 세출은 3조 3,364억원으로 1,711

억원의 세입잉여금이 발생되었다.

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500억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89억원, 사용액은 691억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98억원이다.

예비비는 38억원이 지출 결정되고 28억원이 집행되어 10억원이 이월되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 심사결과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7월 2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와 지도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검사 수수료 반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임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려는 것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제9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예산결산 업무에 대한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예산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5기「함께하는 충북」실현을 위하여 남부출장소를 설치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평생교육수요자의 급증에 따른 다양한 학습욕구와 평생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은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 도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라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의 공간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청남대는 도 소속 기관임에도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
- 청남대 관광활성화 자문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청남대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
- 승용차 입장 실시, 야간개장 등 청남대 관광활성화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규정 신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삭제됨으로써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도세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바로잡습니다 : 지난 제211호에 게재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보류중인 안건을 잘못 게재한 것으로 7월25일 철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제302회 정례회

체육정책 패러다임도 시대에 맞춰야

하 재 성 의원 (교육위원회)



우리나라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지구촌 4대 축제를 유치해 세계 여섯 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세계 속의 우뚝 선 코리아로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올림픽특구로 지정됨은 물론 평창특별지원법 제정으로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과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등 교통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것이며 수 십 조원에 이르는 사회 간접자본 투자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지역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해 치른다는 것은 체육 인프라구축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진작과 지역경기부양은 물론 고용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도내 13개 종합경기장 중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종 종합경기장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2종 경기장도 2곳 뿐이었습니다.

청주종합운동장조차도 국제공인기록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야구장은 프로구단들이 오기 꺼려할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북체육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60억원을 들여 청주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을 개·보수 한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지사님, 그리고 이기용교육감님 !

차체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가지고 각 시·군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의 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고전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시대가 바뀌면 체육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충북도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스포츠를 통해 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내 돈 아끼듯 해야 합니다”

김 동 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은 민주화 세력의 투쟁의 결과이며 몇 가지 전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개성의 원칙이 있어 반드시 주민에게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의회의 예산 심의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모든 도민과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큼 중요한 결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 모두가 간과해 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결코 사업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돈을 써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연 내 지역구의 예산이 사업목적에 적정했는지, 아끼고 절약했는지, 우리 모두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만 교부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감사결과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근절되지 않고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 임직원과 회원들께서도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꼭 필요한 돈만 아껴서 써야 할 것 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입니다. 충청북도의 예산은 수십 년 동안 청주·청원 위주의 정책에 따라 편중 지원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부권의 농업발전과 북부권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하여 반드시 균형개발이 전제된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내 집 돈을 사용할 때처럼 합리적으로 지출했는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 전체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출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절약해서 쓰는 것이 국민의 가장 으뜸가는 임무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깁시다.



충주대 - 철도대 통합에 대하여

전 응 천 의원 (교육위원회)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과 관련하여 충주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역의 역량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도 시원찮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을 반복하는 모습은 논쟁의 양측 모두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해법은 없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당장 중단하고 학교의 발전과 충주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측에서는 '대학의 운명은 대학의 구성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데, 과연 충주시민들이 통합의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통합 문제는 대학의 고유권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충주대학교가 1962년 충주공업초급대학으로 출발해 충주산업대학으로 확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충주시민의

관심과 사랑과 물심양면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일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금이야 옥이야 키워 온 충주대가 수도권에 전문대학에 흡수 통합되어 사라지는 운명으로 보일 소지가 충분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통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 안타깝습니다.

작금의 문제가 과연 이렇게 혼란스런 상태로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이 우리 지역에 손해가 된다면 다른 대학과 유리한 조건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통합이 정당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통합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대책 필요

이 광 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최근 지역을 돌아보면 경제가 어렵다, 살기가 힘들다 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데 우리지역, 우리 충북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이 활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내 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물량을 적절히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지역 업체들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 수주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외지 대형건설업체가 지역건설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공동수급비율을 49%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건설

업체에서 공사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전체 공사물량의 60% 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의 경우 계약 내용과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 등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이 살아나야 하며 이 중에서도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건설업이 활성화 될 때 우리 충북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제302회 정례회

균형발전 말보다 예산 수반돼야

황 규 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포도’와 ‘묘목’의 고장 옥천에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자리에서 지역의 가슴 아픈 현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도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남부 3군은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으로 특히 옥천은 수도법 등 각종관련 법률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보은·옥천·영동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1996년부터 금년까지 총 35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에 2013년 일몰제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을 지속되는 규제를 고려하여 지사님께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대안사업이 나올 때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012년 1월 남부출장소 개청 때에는 농산업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남부 3군 농정분야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 지역을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명실상부한 「생명

농업특화지구」로 승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도 확·포장 문제입니다. 민선 3기부터 시작한 지역 내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기존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공기를 단축하여 완공해 주시길 바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 의지와 열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균형발전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충청북도는 낙후지역에 더 늘려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 160억 원에서 금년에는 130억 원으로 3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균형발전 정책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디 낙후지역에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김 재 종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지방자치 부활 20년 만에 전국 처음으로 본회의가 향수의 고장 옥천에서 개최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균형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도민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남부권의 균형발전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남부 3개 군의 기업유치문제입니다.

남부권에는 보은군에서 3개 기업을 유치한 것 외에 옥천군과 영동군은 단 한 개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남부권 기업유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보은첨단산업단지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보상절차를 원활하게 시행하고 남부권의 균형발전 차

원에서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촉구합니다.

셋째, 양저~지수, 장야~매화 간 도로 확·포장공사문제입니다. 현재 착공이 아닌 발주 준비 중인 상황으로 남부권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 진행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소방서 신축공사 문제입니다.

옥천소방서 신축공사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설계비를 삭감하는 것도 지역불균형적인 처사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재작성하는 현실적인 논의가 고려돼야 하며 리더들의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부매일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 최초 시도
제책, 제사, 오후서 구회발전 의지 싣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정시

충북도의회, 의정사상 최초 옥천서 본회의

경남부권 본회의 및 균형발전 다짐대회

“제천하반기엑스포 후속조치

[illegible]

“충북문화재단 관련조례 정비해야”

비핵화로, 활동가들, 투자자들과 함께 참여자들과 500여명 "100인의 100인의 의정서"를 통해 경제권 건설과 다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김영애씨는 "과연한 '탈이거는 두'의 길로 갈 것인가? 500여명 100인의 의정서"를 통해 경제권 건설과 다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김영애씨는 "과연한 '탈이거는 두'의 길로 갈 것인가? 500여명 100인의 의정서"를 통해 경제권 건설과 다문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충북 북부권 국제적 관광거점 육성해야”

[illegible]

- /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 /

균형발전·복지 확충 총력

세미원 연구방법을 다들알았다

●앞으로 도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선시 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 발전의 제도화에 주력하겠다.
 ○정읍을 임무에 대한 사후 평가를 넘어서서 정책 기획을 위한 단계부터 참여하고, 대안 제시를 계획하다. 또한 경제

원형개 묘사구문 체계

◆도민들에게 일부하고 싶은
말씀

중앙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도민들
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
에 부응해 용마를 나아갈 것
임을 여러회 차지를 보내주실
것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내
게 의뢰하고 정력을 잘 다려서
부족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참정정신인 것이라 생각
드리며, 첫번째로 용마를
의 제국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연락처

제302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삼임위 의정활동

중부권 균형발전토론회 괴산서 개최

윤명진 과산 농업경영연 연합
장, 박재여 과산 농촌지도자
협회장, 김흥기 과산 현우협
지부장, 김경우 과산 영농협
지부장, 김재자 과산 지역개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산업
채워워워 산업채워워워에서는
장국 상한기 주요 업무주 상
을 보고 받고, "FTA 등의 회
대 따른 농업-농촌 구조 개선
미래농업의 변화에 대응할 새
은 자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장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선진화
주목에 중점"을 주문했다.

“이사권 독립 등 번제도 개혁해야”

충북도의회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식

[illegible]

고 아랍을 공격과 해산이 무의의
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의의
삼을 지어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에서
전체 사안을 위해 두 눈과 고
로 방안을 설계는 자제를 가
가르치고, 북한의 위상을 더욱
한 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한 일
"이라며 "국민의 애환을 안
는 현정부가 국민, 주인에 소
무한히 있어야 하는 법한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정책
강제로서 아랍의 앞을 열어 줄

김 의원은 제1회 과제회의
공적인 자발추진을 요청하며
참여적인 자발성분과 자발성을
중심으로 조직이 생겨 났을
기 때문에 한일 협정의 필요성
이므로 물론 국가 내각에 전파
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추이를 통해
20년은 앞당겨 제정될 것으로
주인재는 장안주위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과
제위원은 전체에 걸쳐서 연구
하여 통일방안으로 출현하게

2008년 1월 1일 기준
2008년 1월 1일 기준

24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식

충청북도의회는 7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도의회 20년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면서 힘찬 도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기념식후 축하떡 절단 장면



▶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 장류식품산업 육성사업장 방문

건설소방위원회는 7월 18일 장류식품산업 육성사업현장인 괴산군 진미식품공장을 방문해 계약재배, 지역농산물 구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추진을 당부했다.



▲ 웰빙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점검

건설소방위원회는 7월 21일 보은군청을 방문해 천연자원물 웰빙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선정을 주문했다.



▲ 교육활동·시설 점검

교육위원회는 7월 13일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로 특성화된 보은군 속리중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과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특성화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 충북도청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준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8월 4일 충북도청 서관 옥상에 설치한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준공식에 참석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꿈나무들 충북도의회 견학

청주 중앙·청원 남이초등학교 학생들이 6월 30일과 7월 15일 각각 도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과 의정 전시관을 견학하고 홍보영상물을 시청하며 의정체험을 했다.



▲ 을지연습장 충무시설 방문

충청북도의회는 8월 17일 충청북도 2011을지연습이 실시되고 있는 충무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방위태세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격려

김형근 의장은 7월 18일 전국기능경기대회 충북 선수단을 방문해 '개인의 영광과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 농촌일손돕기

충청북도의회는 7월 1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주시 양성면 모점 마을 장영태씨의 복숭아 과수원을 찾아 농촌일손을 도왔다.



▲ '전통시장 가는 날' 선포식 참석

김형근 의장은 8월 17일 석교동 6거리 재래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가는 날' 선포식에 참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격려했다.

세 무 상 식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세정지원

국세청은 7월 말 수도권·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방법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현행 세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지만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에 따라 일부 미용목적 수술 등에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의사의 용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의

한 수산생물의 진료는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무도학원의 교육용역 등은 7월 1일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공급가액을 구분 기재·발행하여야 하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건강상식



정진홍 원장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건강증진의원

관절염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고 염증이란 병든 부위에 부종, 홍조, 발열, 동통과 같은 병리학적인 반응을 특징으로 한다. 관절염은 그 자체가 병명이 아니고 어떤 질환의 한 결과로서 나타남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면 그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관절염의 종류는 무려 100여 가지가 넘으며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루푸스, 통풍 등이 일반적으로 흔한 종류이다.

관절은 관절 연골(물렁뼈)과 주위의 뼈, 관절을 싸고 있는 막으로 구성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관절 연골에서 시작된다. 연골을 만드는 성분을 만들어 내는 연골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기능이 떨어져서 연골의 탄력성이 없어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골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병이 점점 진행되면 관절 막으로 둘러싸인 관절 강 안으로 유입되는 여러가지 물질에 의해 염증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관절의 동통이 주 증상이며 장거리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 등으로 증상이 악화된다. 안정하면 통증이 완화되며 류마토이드 관절염이 아침에 뻣뻣함을 많이 느끼는 것과는 달리 관절을 많이 쓰고 난 뒤에 통증을 호소한다.

관절은 부어오르고 움직일 때 마찰음 등이 나타나고 진행하면 관절의 변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많이 침범되는 관절은 손의 원위 수지 관절 이외에는 대부분 체중 부하가 많은 슬관절, 고관절이다.

관절의 병변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에 연골 파괴

가 주요 소견이지만 인체의 방어기전의 결과로 생각되는 변화가 작용 압력을 받지 않는 주변 부위에서 신생 혈관의 증식과 함께 골극을 형성한다. 이 골극 때문에 관절 운동이 제한을 받게 되어 오히려 병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요령으로는 변형을 야기할 수 있는 자세를 금할 것, 가능한 가장 힘든 관절을 이용할 것, 한 위치에서 너무 오래 멈추지 말 것, 올바른 운동 패턴을 따를 것, 통증이 있을 때는 그 아픔을 무시하지 말 것, 일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할 것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분무기 사용할 때 손가락 대신 손바닥 사용하기, 팔꿈치로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 닫기, 손 대신에 엉덩이 사용하기, 젖은 행주는 손바닥으로 짜기, 냉장고 문 전 자렌지 문에 끈으로 손잡이 만들어 사용하기, 장갑 모양의 스폰지 수건 사용하기, 접시는 양손으로 받치기, 커피 잔은 양손을 사용하여 잡기, 장시간 서 있을 때 양쪽 발에 고르게 체중이 분배되도록 설 것, 앉아 있을 때에는 등이 다리와 직각,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높은 자세하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 표지석은 “청남대로”

박 종 성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표지석을 옛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인 청남대에 설치하자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표지석은 ‘고 노무현 대통령 청주 시민추모위원회’에서 2009년 대통령 서거 당시 모인 시민성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만든 것이다. 그러나 추모 표지석은 제작 이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추모위원회는 2009년 7월 10일 노 전 대통령의 49재를 맞아 합동분향소가 차려졌던 상당공원에 표지석 설치를 추진했으나 청주시와 보수단체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그리고 2011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년을 맞아 추모 표지석은 수동성당에 임시 설치됐다가 일주일 만에 청원군 오창읍의 한 농가 창고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청원군 문의면의 한 공방에 보관되어 있다.

추모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북도에 돌려 준 청남대에 추모비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충청북도에 제안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추모 표지석을 청남대에 설치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추모 표지석 설치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지석이 최근 다시 문을 연 대통령역사문화관에 보존할 수 있는 대통령 유물이나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충청북도의 관계는 남다르다. 2003년 4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충청북도에 환원했다.

또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건설을 위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지역균형발전’에 두고 행정복합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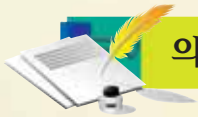
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충북에서도 KTX 오송역, 충주기업도시,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건설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표지석’을 청남대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예정지는 청남대가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 정원’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추모 표지석을 대통령 정원에 설치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

첫째, 충청북도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충북이 표시하는 감사의 의미이다. 대통령 임기동안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의 충북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봉하마을이 아닌 충북의 청남대에 추모 표지석을 두자는 것이다.

둘째, 청남대 발전을 위해서이다. 청남대는 초기 대통령 별장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었으나 이는 단기간 효과에 불과했다. 이후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는 청남대를 단순한 관광지로 보기 때문이다. 청남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을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이제 청남대를 관광지가 아닌 교육의 장으로 구성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기릴 수 있는 추모 표지석을 청남대에 두어야 한다.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표지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면 역대 대통령에 관한 자료와 유물을 함께 전시할 수는 없다.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애를 전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교육의 일환으로 추모 표지석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작은 토네이도



김도경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돌풍이 휩쓸고 간 피해지역을 돌아보며 폭탄을 맞은 전쟁터를 보는 듯 했습니다.

7월26일 늦은 저녁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옥수리, 금대리 일원 마을에서 주택이 날아가고 300년이 된 마을보호수가 처참하게 부서지고 가로수가 지나는 차량을 덮쳤습니다. 인삼밭, 과수원, 양계장, 축사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농촌마을을 바라보며 인간이 자연에 얼마나 힘 없고 나약한지를 절실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사람도 농사도 역시 하늘이 하는가 봅니다.

연이은 서울·경기의 폭우 속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언론을 통해 바라보면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환경사업인 4대강, 새만금, 구제역, 미군기지 다이옥신 문제, 산을 파헤치고 강을 파고 물길을 돌리고 수십 층의 콘크리트 건물들과 흙한줌 보이지 않는 도시, 아마도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습도가 40년 전보다 4% 더 습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390ppm 인데 과학자들이 350ppm 까지가 대기에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탄소의 양 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더 따뜻해지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에너지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 폭풍우가 강력해지고 더 많은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작지만 강력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돌풍이 스쳐간 자리가 우리가 사는 환경이 변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90이 다 되신 어르신은 평생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 하십니다.

먹을거리, 입을 거리 어느 하나 환경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실천하는 일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농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복구를 위해 달려와 주신 기관단체, 공무원가족, 경찰가족,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청원안내 |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1~5155

| 민원안내 |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8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1
- 팩 스 : 043) 220-5159

| 방청안내 |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